

남진, 고향사랑기부제 2년 연속 500만원 기부

목포 출신 가수 남진(왼쪽)이 새해 목표 첫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기부를 했다. 남진은 기부제를 시작한 지난해에도 500만원 최고액 기부를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남진은 목포 장평동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난 1965년부터 가수로 활동했다. 그의 고향 사랑은 인기곡 '남오신 목포항', '목포의 연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전남도 고향사랑 홍보대사로 위촉돼 고향사랑기부제를 전국에 알리고 있다. 남진은 "한번 태어나면 변하지 않는 것은 고향과 지문"이라며 "그만큼 변하지 않는 게 고향을 향한 마음이며,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기부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2024년 첫 기금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장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광주여대, 투계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후원



광주여대 구성원들이 지역사회를 돕고자 한 마음 한뜻으로 나섰다.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사회봉사센터는 최근 투계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광주여대 사회봉사센터와 제26대 총학생회 '여운'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교내 구성원들이 모금해 마련한 라면, 식료품 등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사회봉사센터는 "사회봉사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며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계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전해주는 단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엄홍길 대장, 우주 여행자 되다 DNA 담은 캡슐 심우주로 보내



산악인 엄홍길(사진) 대장의 DNA가 담긴 캡슐이 우주로 보내졌다. (주)스페이스스타는 8일 오후 4시 18분(한국시간)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DNA가 담긴 캡슐을 달 궤도 넘어 심우주(지구 중력이나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간)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스타는 우주장(驍), 우주 기념 서비스 제공업체다. 엄 대장의 DNA는 미국 민간 우주 기업 셀레스티스사의 엔터프라이즈호 실러 플로리다주 케이프 케네버럴 우주센터에서 ULA사의 Valcan 로켓으로 발사됐다. 엄홍길 대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달 궤도 넘어 심우주로 DNA를 보내는 우주 여행자로 기록될 예정이다. 엄 대장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 우리 국민에게 지구를 떠나 무한한 우주로 향하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셀레스티스사의 엔터프라이즈호에서는 이번에 엄 대장의 DNA 운송뿐만 아니라 우주장래(우주안치)절차도 진행됐다. 스페이스스타 최태대 대표는 "지구궤도, 달, 심우주로 향하는 우주장(우주안치)사업, DNA 및 개인의 메시지·영상·사진 등을 우주로 보내는 기념우주여행 서비스를 넘어 유인 우주여행시대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네이버스·광주아동센터연합회, 위생용품 전달

굿네이버스 전남 총청권역본부(정용진 본부장)와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류재근 회장)는 최근 저소득층 가정에 아모레퍼시픽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기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물품은 '약속의 시작' 등록센터 소속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용진 본부장은 "위생용품 전달을 통해 아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KOR컨소시엄, 대만 대학들과 업무협약



전남대학교 KOR컨소시엄이 중국문화대학원 한국어문학과 등 대만 주요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대 제공>

광주디자인진흥원 이수림 팀장 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광주디자인진흥원 이수림(사진) 전 기획팀장이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첫 100% 대면 행사로 진행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흥행 및 우수한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시예기를 최소화, 친환경 전시환경 연출 등 'ESG' 개념 실천 및 강화로 평가를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분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유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아침밥	45 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오솔부터 친해지구(재)	00 환상연가(재)	15 헬로킴즈 공학교실(재) 30 주니도니이야기 45 밤에 피는 꽃 프리미어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신년특집 기우 위기 다큐멘터리 물어 물어온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집 금송아지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킴즈 동물교실3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KBS 뉴스타임 15 시간여행자 루크(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00 뉴스브리핑
3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어린이 동물티비(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	00 시사건건	00 한국인의 밥상(재)	10 트로트 클래스 3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6	00 6시 내고향	50 유아한 제국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30 더 시즌즈 베스트 55 슈퍼맨이 돌아왔다	00 PD수첩	30 KBC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1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	00 솔로동창회 학연	20 감성장VS
9	00 KBS 뉴스 9	30 아이 러브 스포츠 55 골든 걸스 스페셜	30 100분토론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55 TV예술무대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11	30 영성앨범 산(재)			
12	1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그린조끼 구조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7:55 한글용사 아이아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최강경활 미니특공대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몸	18:40 EBS 뉴스
07:00 미스터리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30 출동! 슈퍼월스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
07:45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거침없이 맥시코 -아츠텍의 심장, 멕시코시티>
08:20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35 한국기행
08:35 뽀뽀뽀 뽀로로	16:40 당동명 유치원(재)	<지글지글 불맛 기행 2부 매주는 내 인생>
08:50 사샤 앤 마일로	17:00 페파 피그	21:55 EBS 다큐프라임
09:20 인간과 바다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22:50 건축탐구 - 집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	17:25 미스터리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9일(음 11월 28일 壬申)

<p>36년생 진퇴양난으로써 고역이 가중되는 형상이다. 48년생 면모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60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하니 형편이다. 72년생 단단히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84년생 인과 관계의 핵심적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96년생 고생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15, 82</p>	<p>42년생 전혀 다른 것이니 처음부터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 54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66년생 제대로 호평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78년생 대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90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순탄한 판국을 조성할 수 있다. 02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02, 70</p>
<p>37년생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재를 불러들이는 격이 된다. 49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자. 61년생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기회이다. 73년생 행운의 문이 열리게 되는 마당이다. 85년생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97년생 시작이 을 바르면 성과가 앞차다. 행운의 숫자 : 48, 71</p>	<p>43년생 흠속에서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 55년생 어려움 있으나 머지않아 해결될 수이니 걱정하지 말고 임하라. 67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최상이다. 79년생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차지하게 된다. 91년생 이별을 자초하는 동생이 돼버릴까 두렵다. 03년생 결가지는 차차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07, 91</p>
<p>38년생 어려움은 지나갔으니 안심해도 되느니라. 50년생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62년생 기존의 틀이 불편하다면 차제에 그 골레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74년생 파격적인 제안이라면 조건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86년생 제어할 필요가 있다. 98년생 참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73, 66</p>	<p>44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우연히 협조자가 나타나서 물고기를 트는 형상이다. 56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막상 열어 보면 텅 비어 있느니라. 68년생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느니라. 80년생 쉽게 속을 속을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라. 92년생 억척질이라면 과감하게 배제해도 된다. 04년생 자기감각에 빠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5, 89</p>
<p>39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51년생 틀이 깊은 곳이라면 큰 고기가 풀려나 있다. 63년생 상대는 힌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75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87년생 확실한 절제와 과당성 있는 실행이 절실한 때이다. 99년생 몇 가지가 겹치면서 혼선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8, 95</p>	<p>45년생 애초의 예상대로라면 순기능을 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57년생 모순을 인식했다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9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 81년생 다양하게 세분되면서 체계가 서리라. 93년생 성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05년생 생 눈에 띄는 것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0, 57</p>
<p>40년생 이론과 실제 현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자. 52년생 훗날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64년생 한껏 멋 내고서 탐욕에 홀로 걷는 격이다. 76년생 선택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 되겠다. 88년생 전체의 판국을 섭렵한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00년생 목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협화음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01, 63</p>	<p>46년생 감정이 보이나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58년생 더불어 논의한다면 훨씬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70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82년생 천천히 진행해야 장해가 없을 것이다. 94년생 승동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커진다. 06년생 불안정한 부분이 보이거든 충분히 보완해 줘야 하겠다. 행운의 숫자 : 24, 73</p>
<p>41년생 조처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53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때 매사가 풀려나 있다. 65년생 실행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77년생 대체적인 골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89년생 고행의 길이지만 지극한 정열을 위한 보람은 있었다. 01년생 현재의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머지않아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49, 85</p>	<p>35년생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47년생 모순점이 보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9년생 진행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71년생 지금 실행해 놓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83년생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95년생 내용이 알찬 만큼 포장까지 깔끔하다면 금상첨화이니라. 행운의 숫자 : 47, 88</p>